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모범적인 활동사례로 세계가 주목

넬싱 나우 이사회 열려

신경림 간호협회장, 이사로 위촉돼 회의 참석



넬싱 나우 이사회가 ICN 대표자회의 기간 중에 열렸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넬싱 나우 이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나일젤 크리슈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기념촬영을 했다.

넬싱 나우(Nursing Now) 이사회가 6월 26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넬싱 나우는 국제간호협회(ICN) 대표자회의 기간 중에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받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나이젤 크리슈(Nigel Crisp) 공동위원장과 셸라 틀로우(Sheila Tlou) 공동위원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했다.

나이젤 크리슈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에서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을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신경림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한간호협회의 탁월한 리더십, 열정과 도전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0년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ICN 및 WHO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호사들을 강력하게 옹호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간호사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에 추진될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 세계

간호현황보고서 발표, 나이팅게일 2020 컨퍼런스 등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사회에 이어 넬싱 나우와 ICN 연계 세션이 6월 27일 열렸으며,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넬싱 나우 캠페인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넬싱 나우는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2020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넬싱 나우와 ICN, WHO가 함께 추진하며, 버데트간호재단(Burdett Trust for Nursing)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 ICN으로 이관해 넬싱 나우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게 된다.

현재 세계 89개국에서 동참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11월 1일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넬싱 나우 캠페인은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달성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캠페인은 버데트간호재단의 ‘Triple Impact’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간호사가 건강상태 개선(Better Health), 양성평등(Greater Gender Equality), 경제상태 개선(Stronger Economies)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넬싱 나우 캠페인은 간호사의 지위(위상)를 향상시켜 글로벌 헬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의 영향력을 높이고 간호사의 리더십을 개발한다. 고위직에 간호사가 늘어나도록 한다. 간호사를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글로벌 고위급 리더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둘째, 간호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간호가 건강, 여성의 역량강화(북돋우기),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를 연구하고, 찾아내고, 알린다.

셋째, 간호가 여성의 지위와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넷째, 간호가 국가의 모든 정책에 포함될 때의 효과를 보여준다.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한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세계간호현황보고서(SoWN)

WHO, 내년 4월 7일 발표 목표로 추진

각국 간호사 현황, 간호교육, 간호법 등 조사해 수록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간호현황보고서(SoWN: The State of the World’s Nursing Report)’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4월 7일 세계 보건 의 날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간호사가 보편적 건강보장과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는지(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 향후 3~5년간 정책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술하게 된다. 회원국들의 간호인력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간호사 수, 교육, 규정(법), 근무환경, 리더십, 젠더 이슈 등을 다룬다.

보고서를 통해 각국 간호협회가 통계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각국의 간호사 인력개발을 촉진하고, 간호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추진동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국 정부를 통해 간호현황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2020년 4월 7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5월에 열리는 제9차 간호정책수석(CNO: Chief Nursing Officer) 글로벌 포럼에서 다뤄지고,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보고된다.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했으며,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잇는 국제사회의 새 목표이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됐다. 이중 셋째 목표가 ‘건강과 웰빙’이며,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다.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3. 건강과 웰빙 △4. 양질의 교육 △5. 양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지속가능한 에너지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10. 불평 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13. 기후행동 △14. 해양생태계 보호 △15. 육지생태계 보호 △16. 평화와 정의 및 제도 구축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지속과 환경보전에 관한 목표들을 강화했다. 현재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염두에 둔 발전방향을 토대로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UHC)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7개 목표 중 하나인 ‘3. 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목표이다.

보편적 건강보장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치료 등에 대한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WHO와 ICN은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목표는 ‘4. 양질의 교육’ ‘5. 양성평등’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등이 손꼽힌다. 양성평등이 이뤄질 때 GDP(국내 총생산)가 증가하는 경제성장 효과, 건강결과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N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국제간호협회(ICN)는 비전 및 미션 아래 앞으로 5년간 추구할 4대 목표 및 24개 실천사항, 3가지 축 및 4가지 핵심가치를 제시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2019-2023)’을 발표했다. 전략적 계획은 ICN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행할 사업 및 활동을 요약한 것이며,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비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간호사와 간호전문직을 인정하고 지원하며 투자한다.

◇미션= 전 세계의 간호사들을 대표하고, 간호전문직을 발전시키며, 간호사들의 웰빙을 증진시키고, 모든 정책에 건강이 반영되도록 한다.

◇4대 목표

1. 글로벌 영향력(Global Impact)=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세계와 지역 차원의 건강, 사회, 교육,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2. 회원국 북돋우기(Membership Empowerment)=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ICN 3가지 축을 중심으로 각국 간호협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3. 전략적 리더십(Strategic Leadership)=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전문직을 발전시키고, 인구(국민), 보건의료 시스템, 간호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4. 혁신적 성장(Innovative Growth)=IC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가치와 일치하는 사업 및 수입 창출 기회를 발굴, 확보, 다각화한다.

◇3가지 축

1. 전문직 간호실무(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2. 간호규정(Nursing Regulation) 3. 간호사의 사회경제적 복지(Socio-economic Welfare for Nurses)

◇4가지 핵심가치

1. 사회정의(Social Justice)=사회와 간호전문직을 위한 평등과 공정성 실현 2. 책임성(Accountability)=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정보기반의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보장 3. 포용성(Inclusiveness)=폭넓게 다양한 파트너, 회원, 관점을 수용함 4. 혁신성(Innovativeness)=창의적, 변혁적, 진취적, 근거중심적, 솔루션 지향적이어야 함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지난해 출범

ICN 회장, 출범식에 참석 ... 복지부 장관과 면담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Nursing Now Korea) 출범식은 지난해 11월 1일 ‘2018 간호정책 선포식’과 함께 열렸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60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첫 출발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남녀 대표가 무대 위에 올랐다.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로고가 새겨진 피켓을 펼쳐 든 가운데 신경림 위원장(대한간호협회장)이 출범을 선언했다.

출범선언에 이어 참석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넬싱 나우’ 및 ‘간호법 제정’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이때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로고 및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피켓을 펼쳐들어 장관을 연출했다.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식 전국무총리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됐다.

특히 출범식에는 국제간호협회의(ICN)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회장과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사무총장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아네트 케네디 회장은 출범식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간호법 제정, 간호전담부서 설치 등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지난해 열린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 출범식 모습.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이 출범식에 참석했으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WHO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

간호사의 역할과 기여 인정하고 격려

내년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맞아 존경 표현

2020년이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2020년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정했다고 지난 5월 24일 발표했다.

역사상 최초로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

(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Nurse and Midwife)를 지정하는 방안은 올해 1월 열린 세계보건기구 이사회에서 제안됐으며, 총회 위원회 어젠다로 상정된 후 최종 결정됐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

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와 조산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또한 2020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해라는 점에서 더욱 환영한다”면서 “나이팅게일이 등불로 간호사들을 밝혀주었듯이, 이제 다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어떻게 불을 밝혀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넬싱 나우 공동위원장이 나이젤 크리슈 경은 “간호와 조산 분야에 투자하면 신속하게, 비용효과적으로, 잘 연계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부는 간호사와 조산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공화한 말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세계 2천만 간호사들과 함께 2020년 지정을 환영하며, 간호전문직이 인정받게 됐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에

있어서 간호사들의 기여를 알아본 데드로스 사무총장의 선견지명과 해안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이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인 해라는 점에서 더욱 환영한다”면서 “나이팅게일이 등불로 간호사들을 밝혀주었듯이, 이제 다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어떻게 불을 밝혀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넬싱 나우 공동위원장이 나이젤 크리슈 경은 “간호와 조산 분야에 투자하면 신속하게, 비용효과적으로, 잘 연계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부는 간호사와 조산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공화한 말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